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7년 12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21.(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12. 21.(목)	담당부서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해수부 해양정책과, 연안해운과
담당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 강감찬 과장 (044-203-4330)	담 당 자	김완상 사무관(044-203-4334)
	해양정책과 송명달 과장 (044-200-5229)		이승혁 사무관(044-200-5296)
	연안해운과 김용태 과장 (044-200-5735)		정광월 사무관(044-200-5736)

국내 최초 LNG 추진 상선, 미래로 출항!

- 22일, 세계 최대 LNG 추진 벌크선 '그린 아이리스' 호 명명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2. 22.(금)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국내 최초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상선인 '그린 아이리스*(Green Iris)'호가 명명식을 거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아이리스'호는 상업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연안화물선이다. 특히, 이 선박은 5만 톤급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벌크선이며, 포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를 세계 최초로 적용한 선박이라는 점에서 향후 매우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다.

* 국내 최초의 LNG 추진선은 인천항만공사 항만안내선 '에코누리'호(260톤급, '13년 도입)

명명식을 마친 '그린 아이리스'호는 최적화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 이후 부터 동해에서 광양까지 석회석을 운송(월 5항차)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벙커링)은 동해항에서 한국가스공사의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 받을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은 선박 유해가스 배출*을 대폭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운항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여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선박이다. 다만, 벙커링 시설 등 선박 운영 기반시설(인프라)가 부족해 선·화주가 선박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미세먼지 주요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저감 및 CO_2 20% 저감 기대(DNV-GL, '12)

이에 정부는 '그린 아이리스'호를 금융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항만시설료 면제 등을 통해 건조비용 부담 해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스공사와 협력해 초저온 복합 호스 등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기자재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액화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지속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그린 아이리스' 호는 선박연료의 액화천연가스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등 신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그린 아이리스' 호의 성공적 운항을 위해액화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고망간강과 같은 신소재의 개발이 실증을 거쳐 업계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를 해운·조선 산업의 상생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린 아이리스'호 이외에도 포스코, 남동발전 등 국내 주요 화주와 협력하여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IMO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작년 10월 회의에서 선박배출가스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3.5%→0.5%)하기로 결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완상 사무관(☎ 044-203-433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일신 그린 아이리스'호 개요

□ 선박 개요

○ (**화주/선주/건조사**) 포스코 / 일신로지스틱스 / 현대미포조선

○ (**건조기간 /규모**) '16.6~'17.12(약 18개월) / 5만톤급 벌크선

○ (**주요설비**) LNG연료추진시스템(현대중공업), LNG연료탱크용 고망간강(포스코)

* 길이: 191m, 폭: 32m 선속: 14knots, LNG연료탱크 용량: 0.5km^3 (지름 7m, 길이 18.7m)

○ (**운항항로**) 동해(동해항에서 LNG벙커링 수행) → 광양, 월 5항차 예상

□ LNG벙커링 방식



○ **TTS**(Truck To Ship) **방식** 사용

- 월간 10대의 탱크로리 투입 (한국가스공사 제공 예정)
- 탱크로리 2대 동시 벙커링시 약 1시간의 벙커링 시간 소요

□ 도입 기대효과

○ 해운, 조선, 제철 분야 등 **LNG 추진선 연관 산업간 상생 발전** 계기 창출 및 LNG 벙커링 등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해운업	중소해운사 일감 확보, LNG 추진선 운항 경험 축적
조선업	고부가가치 LNG 추진선 수주 및 건조 경험 축적
제철업(포스코)	신소재(고망간강) LNG 연료탱크에 대한 Track Record 확보
LNG공급업	LNG 벙커링 등 미래 항만신산업 창출 계기 마련

< 일신 그린아이리스 >



참고 2 '일신 그린 아이리스'호 명명식 개요(안)

□ 명명식 개요

○ (**목적**) **국내 최초 LNG추진 상선***(5만톤급, 석회석 운반선) 도입을 기념하기 위한 **명명식** 개최

* (선주/ 화주/노선) 일신해운 / 포스코 (**고망간강** LNG연료탱크 장착) / 동해항-광양항
  - LNG 연료탱크 및 화물창 신소재인 **고망간강 최초 적용 선박**으로,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IMO 규정 등록 등 상용화 성공시 **연 5,000억원 규모 시장 진출 기대**

○ (**일시/장소**) '17. 12. 22(금) 10:00 ~ 14:00 / 울산 현대미포조선 제5안벽

○ (**참석자**) 해양정책실장, 산업부, 포스코, 일신해운, 현대중공업 등 관련 업계

□ 명명식 주요 일정(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10:00 ~ 10:30 (30′)	홍보동영상 관람		현대미포조선 (본관)
10:30 ~ 11:00 (30′)	명명식	국민의례	5안벽
		환영사/축사/기념사	
		명명 & Axing	
		샴페인 브레이킹	
		기념사진 촬영	
11:00 ~ 11:40 (40′)	선상 행사	테이프 커팅	그린 아이리스호
		Horn Blowing	
		선물 증정	
		다과 및 기념 촬영	
		선실 Tour	
11:40 ~ 12:00 (20′)	오찬장 이동		
12:00 ~ 14:00 (120′)	명명 오찬		현대중공업 영빈관